

# ‘한국 첫 비보이 올림피언’ 김홍열, 금빛 댄스 춘다



브레이킹은 2024 파리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지난해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브레이킹 종목이 처음 대회 정식종목으로 치러져 비보이(남자 브레이킹 선수) '전설' 김홍열(Hongten·도봉구정)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1970년대 초반 미국 뉴욕에서 힙합 댄스의 한 종류로 탄생한 브레이킹은 음악 중간에 나오는 브레이크 다운 파트(악기 없이 드럼 비트만 나오는 부분)에 맞춰 춤을 춘 데서 유래했다.

각 선수는 무작위로 흘러나오는 음악에 어울리는 고난도 브레이킹 기술과 예술적인 동작을 선보여 심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기계체조와도 유사한 일부 자세를 취하기 위한 근력과 유연성, 약 3분 동안 고강도 움직임을 소화해야 하는 심폐지구력에 음악성까지 두루 갖춰야 하는 종목이다.

파리 올림픽에서는 세계 톱 비보이, 비걸(여자 브레이킹 선수) 각 16명이 초대 금메달리스트 타이틀을 놓고 치열한 배틀을 펼친다.

4명씩 4개 조로 나뉘어 라운드로빈을 진행하고 각 조 1, 2위 안에 들면 8강부터는 토너먼트 단판 승부가 이어진다.

한 경기는 3라운드로 구성돼 2개 라운드 이상에서 승리를 거둬야 한다.

각 선수는 무작위로 흘러나오는 음악에 어울리는 기술과 예술적인 동작을 60초 동안 번갈아 가며 겨룬다.

심판은 9명이 라운드마다 던진 '표'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

평가 기준은 다섯가지다.

기술의 완성도와 신체에 대한 정교한 컨트롤 등을 보는 '기술성', 무대 사용 변경과 다양한 기술 사용 여부를 보는 '다양성', 선수 개인의 창의적인 움직임

항저우 아시안게임서 은메달

고난도 기술에 예술 감각까지

차기 대회 정식종목 채택 안돼

‘처음이자 마지막’ 16명 배틀

직임을 평가하는 '독창성', 기술 간 매끄러운 연결과 실수 여부 등에 관한 '수행력', 음악의 분위기와 리듬에 어울렸는지를 평가하는 '음악성'을 고루 따진다. 즉, 기술과 예술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아야 최고의 비보이-비걸로 인정받는다.

브레이킹 무브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톱록(Toprock)은 본격적인 기술에 들어가기 전 무대에 서서 음악의 리듬을 타는 무브로, 일종의 준비 동작에 해당한다.

다운록(Downrock)은 바닥에 손과 발, 상체, 하체 등 몸을 댄 상태에서 움직이는 동작으로, 화려한 발제간(풋워크) 등이 포함된다.

파워무브(Power move)는 브레이킹의 꽃이다. 원심력을 이용해 회전하는 기술 등 각종 고난도 기술을 일컫는다. 헤드스핀을 비롯해 윈드밀, 투사우전드 등 각종 회전 기술이 있다.

프리즈(Freeze)는 기술과 무브 도중에 특정 자세로 정지하는 기술을 뜻한다.

보통 한 손이나 두 손을 땅에 짚고 수초를 버티야 한다는 점에서 뛰어난 균형 감각과 유연성이 필요하다.

브레이킹 종목은 올림픽이 거의 끝나는 8월 9~10일 이틀간 열린다.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의 중심지였던 콩코르드 광장에서 '젊음'의 상징인 브레이킹이 펼쳐진다.

다만 이번 대회가 브레이킹의 처음이자 마지막 올림픽 무대일 수도 있다.

2028년 열리는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에서는 브레이킹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한국 최초의 비보이 올림피언’ 김홍열은 8월 10일 혈혈단신으로 메달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파리올림픽 남자 브레이킹 종목에 출전하는 김홍열.

〈파이브링스 제공〉

## 여서정 “깨끗한 경기로 北 안창욱과 승부”

기계체조 선수단 프랑스로 출국  
여홍철 대한체조협 전무, 딸 배웅

여홍철 대한체조협회 전무가 17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2024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딸 여서정(제전시정)을 따뜻하게 껴안고 선전을 기원했다.

여서정을 비롯한 여자 기계체조 국가대표 5명, 남자 대표 선수 3명, 코치진은 이날 오전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로 출국했다.

체조계를 넘어 한국 엘리트 스포츠 전체에서 소문난 부녀 스타인 여 전무와 여서정은 출국장에서도 집중 조명을 받았다.

여 전무가 “잘하고 오라”며 환송 인사를 건네자 여서정은 “잘하고 올게. 파이팅”이라며 씩씩하게 답하고 웃었다.

여서정은 2018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 여자 도마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아버지 여홍철 전무와 함께 대를 이은 아시안게임 도마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또 2020 도쿄 올림픽 도마에서는 동메달을 목에 걸어 한국 여자 체조 선수로는 최초로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되면서 아빠와 함께 부녀 올림픽 메달리스트라는 진기록도 썼다.

여홍철 전무는 1994년 히로시마-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남자 도마에서 금메달,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도마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두 번째로 출전하는 올림픽에서 여서정은 동메달 이상의 성과에 도전한다.

여서정은 “다치지 않고 부상 없이 잘하고 돌아오겠다”며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 온 동료들과 같이 올림픽에 가게 돼 재밌을 것 같다. 열심히 하고 올 테니 응원 많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 여자 체조는 36년 만에 올림픽 단체전 본선에 출전한다. 1992년 바르셀로나 대회부터 2020 도쿄 대회까지는 개인 자격으로만 한두 명



2024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체조 국가대표팀 여서정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기 전 아버지인 여홍철 대한체조협회 전무와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도만이 올림픽에 나갔다.

여서정은 “북한의 안창욱 선수를 찾아봤더니(도마 종목) 잘하는 것 같았다”며 “내 기술 난도가 안창욱보다는 낮지만, (연기의) 깨끗함으로 승부를 보겠다. 내 것만 잘하고 오자는 각오로 뛰겠다”고 다짐했다.

경희대 교수로서 2018 아시안게임과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중계 마이크를 잡고 딸의 메달 획득 장면을 지켜 본 여 전무는 이번에도 한국의 방송 스튜디오에서 여서정의 경기를 해설한다.

여 교수가 체조협회의 실무를 책임지는 전무에 오른 뒤 여서정과 관계는 이전 공적인 성격도 띠게 됐다.

여서정이 파리 올림픽에서 메달을 목에 걸어야 올림픽 메달 전략을 수립한 아버지 여홍철 전무의 체면이 선다.

여 전무는 “그간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해왔고, 이제부터는 다 선수들이 알아서 해야 할 몫이니까 우리는 앞에서 응원하는 거밖에 없다”며 “지금 편지가 늦게 답하는데 에어콘이 없어서 선수들이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할 것 같다. 컨디션 조절 능력에서 실력 차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우리나라 체조는 여서정과 남자 마무운동에 출전하는 류성현(한국체대)에게 메달을 기대한다. /연합뉴스

## 박찬호, 최원호 타준족, 마운드 위기 넘는다

김도영 등 'KIA 육상부' 그라운드 뒤편



KIA 타이거즈의 마운드 위기 '기동력'으로 넘길 수 있을까?

1위 질주를 하고 있는 KIA는 올 시즌 이

어진 마운드 부상에 고전하고 있다. 이의리와 윌 크로우가 팔꿈치 수술로 일찍 시즌을 마감하면서 선발진을 재구성해야 했고, 전반기 종료로 앞두고는 마무리 정해영이 어깨 통증으로 재활중이 됐다.

후반기 시작과 함께 이번에는 좌완 선발 운영철이 척추 피로 골절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다.

뜨거운 화력으로 순위 싸움을 해온 KIA는 다시 또 방망이에 1위를 물게 됐다. 하지만 타격은 페이스가 있는 만큼 화력 외에 전력도 필요하다. 바로 '스피드'다.

올 시즌을 앞두고 KIA의 주루는 강점으로 꼽혔다. 뛰어난 센스로 두 차례 도루왕을 차지한 박찬호, 단순 스피드로는 리그 최고 수준의 김도영 그리고 '예비역' 최원준까지 더해 'KIA 육상부'가 구성됐다.

올 시즌 베이스 확대라는 변화까지 이뤄지면서 KIA는 화력에 스피드를 더한 막강 공격을 예고했다.

잠잠했던 KIA의 발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 박찬호가 '출루', 최원준이 '스타트'에서 답을 찾으면서 KIA의 주력이 강화됐다.

지난 SSG전 스윙패를 막는 장면에도 이들의 활약이 있었다.

연패 속 진행됐던 지난 14일 SSG전에서 박찬호는 2번에 자리해 소크라테스와 테이블 세터를 구성했다.

첫 타석에서 볼넷을 골라냈던 박찬호는 0-2로 뒤진 3회 무사 2-3에서 우측 2루타로 2타점을 올렸다. 7회 선두타자로 나와 우전 안타로 멀티히트에 성공하며 공격에서 역할을 했다.

하지만 박찬호가 멀티히트보다 더 의미를 둔 부분은 볼넷이었다.

박찬호는 1회 첫 타석에서 볼넷으로 출루에 성공했고, 8회에도 1사 1루 상황에서 볼넷을 골라내면서 분위기를 이었다. KIA는 이어 김도영의 고의 사구와 최형우의 밀어내기 볼넷 등으로 분위기를 끌고 오면서 7득점 빅이닝에 성공했다.

전날 경기에서도 두 차례 볼넷으로 출루했던 박찬호는 “이틀 연속 밀트 볼넷은 처음인 것 같다”며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다. 이번엔 안착이지 이게 아니고, 방망이가 나가다가 잡아야 되는데 그걸 잊고 있었다”면서 ‘출루’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센스가 좋은 박찬호가 루상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KIA는 상대 배터리를 흔들고 득점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박찬호는 이날 3회 무사 2-3루에서 2루타로 2타점을 올린 뒤 홈을 뛰는 사이 3루까지 진루했고, 이어 김도영의 3루 땅볼 때 홈까지 들어왔다. 스타트를 끊은 그는 1루수 포구 실책으로 여유롭게 홈에 들어와 김도영의 타점을 책임졌다. KIA가 박찬호의 출루를 기대하는 이유다.

최원준도 이날 3회와 7회 선두타자로 나와 연달아 볼넷을 골라 출루에 성공했다. 그리고 두 차례 모두 홈에 들어오면서 득점을 올렸다. 지난주 공격적인 주루로 3개의 도루도 성공하면서 최원준의 발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상무야구단에서 군복무를 하는 동안 많이 뛰지 않았던 만큼 ‘감’을 잡는 데 시간이 걸렸다.

최원준은 “요즘 나가면 점수 날 것 같다고 해서 어떻게든 나가려고 했는데 점수를 만들어서 좋았다”며 “그동안 너무 못 뛰었는데 이제 다리가 풀린 것 같다. 상무에서 안 뛰다 보니까 다리가 안 움직였다. 원래 살아야 할 타이밍에 죽었다. 스타트가 없다고 하겠다. 뛰라고 해도 다리가 안 움직였는데 적응이 된 것 같다. 이제는 공격적으로 뛸 수 있을 것 같다”고 공격적인 주루를 예고했다.

마운드 위기에 봉착한 KIA가 감 잡은 박찬호와 최원준으로 그라운드를 움직이면서 승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

## 역사 깃든 그랑팔레서 태권도·펜싱 ‘역사 만든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때 지어져... 다양한 스포츠 경기 개최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위해 지어진 역사적 건축물 그랑 팔레에서 다가오는 2024파리올림픽 태권도와 펜싱 경기가 펼쳐진다.

100년 전 예술과 스포츠 경기가 열렸던 그랑 팔레는 2024 파리올림픽에서 태권도 선수단과 펜싱 ‘어벤저스’의 기합 소리로 가득할 전망이다.

파리 중심부의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그랑 팔레는 올림픽의 핵심 정신인 예술과 스포츠의 연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다.

1906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고대 그

리스에서 개최되었던 올림픽의 정신을 보존하기 위해 문학, 음악, 회화, 조각 그리고 건축 등이 포함된 이른바 ‘뮤즈 5종 경기’를 올림픽 종목에 추가했는데, 1924 파리올림픽 당시 ‘뮤즈 5종 경기’ 예술 작품들이 전시됐던 장소가 바로 그랑 팔레다.

이후에도 그랑 팔레에서는 다양한 스포츠 경기가 개최됐다.

1937년, 세계 펜싱 선수권 대회와 프랑스 국제 프로 테니스 선수권 대회를 비롯해 2010년 세계펜싱선수권대회도 그랑 팔레에서 열렸다.

2017년에는 파리의 2024년 하계 올림픽 유치 홍보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프로 사이클 경기인 ‘투르 드 프랑스’ 참가선수들이 샹젤리제로 가는 도중에 그랑 팔레를 통과하기도 했다.

2024 파리올림픽 태권도와 펜싱 경기가 프랑스에서 깊은 역사적 의미를 지닌 그랑 팔레에서 열리는 만큼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이 이곳에서 펼칠 금빛 활약에 더욱 이목이 쏠린다.

한편, 이번 올림픽 펜싱 경기는 오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태권도 경기는 8월 7일부터 10일까지 그랑 팔레에서 진행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